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의 사회를

「정화」지 창간호 기념 특별기고

1981년 1월 22일

우리는 지금 민족정기를 드높여 위대하고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일깨우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두말할 나위없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건전한 국민정신입니다.

아무리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신자세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서는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없음을 세계사의 엄연한 교훈입니다.

더우기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은 우리가 건설해 가고자 하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 출범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기풍을 쇄신하고 국민정신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일대 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근대적인 법치주의가 생활화되어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전통적 윤리의식마저 쇠퇴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널리, 그리고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검절약과 상부상조를 덕으로 삼던 조상전래의 미풍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크게 잠먹어 왔습니다.

새 시대에는 이러한 폐습과 비리를 떨쳐 버리고 준법질서와 전통윤리가 조화를 이룬 정의사회를 이룩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충격과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사회정화운동을 꾸준히 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정화작업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도려내는 데 힘을 기울였으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북돋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의 잘못과 그릇된 점을 적발하여 징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혁신하는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새 역사창조의 주체이며, 새 사회의 성원인 우리 국민 각자가 결의를 새로이 하여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생활자세를 확립하는 일이 타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외부의 강제나 권유에 의한 질서가 오래 지속될 리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관주도로 추진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급적 행정지도나 측면지원에 그치고 사회각계와 국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정화운동을 결코 정권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열의가 식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화운동의 추진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은 물론 공직자를 포함한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먼저 자신과 주변을 깨끗이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정신의 계발과 향상에 기여해야 할 지식층도 회의나 무관심, 그리고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이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도덕적 각성과 생활개혁이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 된다면 후대에라도 반드시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결의로 정신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우선 그 기틀만이라도 다져 놓자는 것이 본인의 굳은 신념입니다.

전국민의 참여 속에 사회정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국민정신이 확립되고 정직·성실·근면한 기풍이 생활화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토착화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민주·정의·복지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새 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지난날의 그릇되고 낡은 허물을 모두 시대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사회정화운동의 길잡이가 될 「정화」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잡지가 사회 각계의 정화추진요원은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 두루 읽혀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알찬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